

감사예배

신앙고백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09장/ 목마른 내 영혼 ..... 다함께

- 1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2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 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 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3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4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후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싸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 도 ..... 가족 중 한 사람

말 씬 ..... 로마서 1:7..... 다 같 이

- 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설교문은 뒷장에 있습니다.]

설 교 ..... 은혜와 평강의 인사 ..... 인 도 자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12장/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다 함 께

-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기 도 .....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설교문 “은혜와 평강의 인사” 로마서 1:7

새해 설 명절에는 흠어져 있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한 자주 사용하는 새해의 짧은 인사 속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서로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복’은 좋은 일, 안녕과 평안, 건강, 재물과 같은 수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새해 인사말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로마 방문을 앞두고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편지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와도 같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단 로마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의 많은 글에서 바울은 각지에 흠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특권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의 말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핏줄로 이어진 한 가족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어진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며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 2024년 설날가정예배

2024년 2월 10일



2024년 교회표어: 40주년을 주님과 함께

대한 예수교장로회  
충북교회